

# 코로나 재유행에 복구 인력 급감...수해 농민들 속탄다

구례 봉사자 하루 1500명서 400명으로 감소 등 곳곳 일손 달려 썩어가는 벼 지켜보며 농작물 복구 업무도 못내고 한숨만 '폭폭'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지역 농민들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수해로 망가진 집과 살림살이를 정리할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 썩어가는 농작물을 걷어내고 가을 재배 준비를 해야하는데 일손이 없어 업무도 내지 못하고 있다. 폭염으로 타들어가고 있는 농작물을 땀 흘려 지켜보는 농민들 가슴은 문드러지는데,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면서 복구인력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복구 자원봉사자 줄어=18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구례를 찾아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줬던 자원봉사자가 지난 17일부터 하루 평균 400명 선으로 줄었다. 집중호우 이후 하루 평균 1500명에 달했던 자원봉사자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구정방역이 현장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면서 지역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난은 그대로 여전하다. 구정방역을 더하면 하루 평균 2200명 수준이던 자원봉사자가 1400명 수준으로 줄어들다보니 복구 작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구례 뿐 아니다. 곡성, 나주, 담양 등도 외지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지만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크게 줄어들었다. 나주지역도 하루 평균 400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됐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집 주변 정리·정소 등에 주력하느라, 논·밭작물 복구에는 업무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폭염에...썩어 말라가는 걸 지켜보지만=영산강이 범람한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일대 논에 심어놓은 벼들은 폭염에 타들어가고 있다.

물이 빠지고 구정방역이 힘을 보태면서 논에 가득 쌓여있던 쓰레기는 정리됐지만 쓰러진 벼를 일으켜세울 인력이 없다 보니 말라가는 벼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1만 9800여명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재대씨는 "논에 물이 빠졌지만 쓰러진 벼를 세울 생각이 없고 있다"면서 "집안까지 도구부터 정리해야 해 논에 물도 못 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곡성 신리 마을 농민들은 썩대밭이 된 메론 비닐하우스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하

는데 손이 없어 쳐다만 보고 있다.

추석에 맞춰 판매하려던 멜론 수확은 망친 상태. 9월 중순부터 딸기 재배를 하려면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를 정비하고 썩어가는 농작물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폭염으로 낮에는 일할 업무를 내지 못하는데, 비오듯 땀을 흘리며 주변 정리에 열중한 구정방역들에게 '땀뿡' 같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작업을 도와달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다.

신리마을 멜론 재배농민은 "멜론은 물에 매우 민감해 이번 침수로 다 썩었다"면서 "빨리 걷어내고 다른 작물 재배할 준비를 해야하는데, 일손이 없어 쳐다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농민은 "다음달 10일부터 딸기 모종을 심으려면 할 일이 산더미"라며 "비닐하우스를 뒤엎은 부유물을 걷어내고 주변 정비도 마무리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집중호우로 키우던 소를 대부분 잃은 구례 양장마을 주민들도 소 먹이용으로 구입해놓은 수천만원 어치 볶짚을 말릴 일손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정중우씨는 "소를 잃은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볶짚이 썩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려니 가슴이 문드러진다"고 하소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름의 들녘

18일 오후 지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나주시 다시면의 논 대부분이 폭염으로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24일 전두환 재판...방청인원은 33석 허용

전두환(89)씨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지법 2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장사복 전 전 투교육사령부 참모장과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 항공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묻겠다는 의도이지만 지난 6월부터 장 전 참모장에 대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씨 측은 앞서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씨 가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재판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재판에서도 일반 방청 인원을 기존(65석)보다 줄인 33석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 행정명령 어기고 임시총회 연 재건축 조합장 검찰 송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목포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8)씨를 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목포시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이 운집하는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는 당시 2차 감염이 확산하자 지난달 17일부터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목포에서는 그동안 자기격리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방역 비용 등 행정기관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 병역 회피하려 허위 서류

### 어업인후계자 8명 수사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어업 종사 경험도 없고, 어선도 타지 않았지만 허위 서류를 꾸민 무늬만 어업인후계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A씨 등 8명을 수사 중이다.

'어업인후계자 대체복무 제도'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후 병무청장이 승인한 지정업체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어업활동을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복무점검 담당 공무원들이 복무실태 조사를 하술하게 한다는 점을 악용해 복무 첫날부터 근무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복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월 가량을 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거주 지역을 벗어났는데도,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는다면, 어업 종사 경험이 거의 없고 해수산업 관련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돈이 뭐길래...형제들간 폭력 부른 상속 다툼

### 동생 폭행한 형 영장 신청

경찰이 상속 문제로 다투던 동생을 때려 중상을 입힌 50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북부경찰은 18일 재산분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돈기로 동생의 머리를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부모님 집에서 형제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거실에 있던 조각상으로 동생 B(53)씨의 머리를 때려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진흙으로 제작된 6.2kg 뿔모양의 조각상을 맞은 B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한때 의식불명으로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재산 분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겨 조각상을 던졌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B씨는 자신을 향해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B씨가 크게 다치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법무부·검찰, 방역활동 방해 불법집회 등 엄정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법무부 등이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18일 "검찰과 경찰,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불법 집회 및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임에도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독려·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신종 코로나19 대응본부도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대응단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연남뉴스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